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지음, 창비, 2019

김하나(Kim, Hana)*

그 날의 진실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함에도 '세월호'라는 세 글자 앞에서 자꾸 숨는다. 가족을 잃은 그 분들의 아픔과 고통에 비교할 수 없지만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마다 마음이 아프고 저려온다. 그런 이유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책이나 영화, 다큐를 바로 보지 못하고 미루고 미루다 보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진실을 외면당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받으면서도 멈출 수 없는 기나긴 투쟁의 시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상처를 입은 그 분들의 마음 앞에 또 다시 숙연해지는 4월이다.

그리고 나는 그 분들의 목소리가 담긴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를 마주했다. 서평을 부탁받고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해 알겠노라 답하고 보니 416가족¹⁾들의 이야기다. 모든 글쓰기가 다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글쓰기를 하게 되었다. 내가 쓰는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이 조심스럽다. 혹여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저어된다.

“참사는 내가 일상이라고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부서지는 경험입니다.”(p.8)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1) 여는 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416가족'은 유가족 스스로 쓰기 시작한 이름이다. 여기서도 유가족대신 416가족을 쓰기로 한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떠는 요즘, 우리는 전 없이 일상이 마비되고 통제당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면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일상은 대부분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파괴된 일상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급작스런 이별로 남은 사람들에게는 참사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날 이후 텅 빈 가족의 자리가 낯설었던 일상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416가족들에게도 찾아왔다.

이 책은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와 여전히 투쟁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투쟁의 이야기는 아니다. 참사 이후 죽은 친구들과 사이에서 살아 돌아온 것이 너무나 힘든 생존학생의 부모들, 사랑하는 가족과 금쪽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 개개인의 일상 이야기이다. 이 책은 참사 이후 416가족들의 일상이 얼마나 파괴되고 바뀌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말해주고 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책은 ‘고통의 단어 사전’으로 시작된다. 여는 글에서 작가기록단이 이야기하듯 고통의 단어 사전에 나오는 단어들은 “특별한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일상어들”이다. 개나리, 농담, 라면냄새, 머리카락, 문고리, 밥통, 4인용 식탁, 생일, 에어컨, 요구르트, 편지 등등. 우리에게겐 일상적인 단어이고, 재미있는 에세이의 주제들이라고 해도 무방할 단어이지만 416가족에게는 사고로 잃은 가족, 아픈 마음, 그리움, 사무침, 억울함, 죄책감 등 고통으로 다가오는 단어이다. 이 단어들만 보더라도 416가족이 살아 가고 있는 모든 순간마다 얼마나 사무치게 아이들을 떠올리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 쉬워 보이는 일이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들의 흔적을 찾고 싶어 미처 빨지 못한 옷에서 머리카락을 찾아 코팅하여 지갑에 넣고 다닌다는 강혁 엄마, 몸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도 인지

하지 못한다며 “416이후의 시간들만 남았어요”라고 말하는 준형 아빠, 남아 있는 형제·자매들을 걱정하며 아파하는 은정 엄마, “일상생활과 조율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사실에 죄책감을 느끼는 영만이 형, 다섯 식구에서 네 식구가 된 후 외식하러 간 곳에서 다섯 명 자리를 찾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너무 슬픈 윤민 엄마, 죽은 아이의 생일을 해마다 챙기며 몸으로는 못 만나지만 마음으로 만난다는 지현 엄마. 이 외에도 남아 있는 형제·자매들의 졸업식에서도 곁에 없는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아파하는 부모들과 친구들을 두고 자기만 살아온 것에 대해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힘들어 하는 생존학생들 그걸 지켜보는 부모들의 이야기는 보통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제2장 세월호의 지도는 공간에 새겨진 기억에 대한 이야기이다. 팽목, 안산, 단원고, 동거차도, 목포, 광화문과 청운동, 생명안전공원. 각각의 공간에 대한 416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왜 그분들이 여전히 진실규명을 외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고자 힘든 투쟁을 이어나가는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팽목은 지옥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 고통의 공간이다.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나기 전날, 수학여행을 간다며 한껏 들떠있는 아이들과 헤어진 후 처음으로 아이들을 대면한 곳이다. 우리 아이들이 차가운 바다 위에서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곳이자, 시간이 지나면서는 내 아이가 먼저 올라온 것에 미안함을 느껴야 했던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몇 년 전 내가 팽목을 찾았던 날은 바람이 없는 따뜻한 날이었다. 빨간 등대와 우체통, 노란 리본들이 붙어 있지 않았다면 몇 년 전 지옥과도 같은 공간이었음을 상상할 수 없을만큼 조용하고 작은 항구였다. 먼저 떠나간 아이들에게 인사하려고 항구 옆 작은 분향소로 향했을 때 깔려 있던 자갈을 자박자박 밟았던 기억이 난다. 나중에야 그 곳에 아이들을 방치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무 생각없이 그곳을 걸었던 것이 지금도 못내

미안하다.

안산은 아이들과 어릴 때부터 함께 생활했던 곳으로 아이들의 흔적과 추억이 가득 담겨 있는 공간이다. 그곳에서 416가족들은 아이들을 보내줘야 했고, 부모들과 살아남은 아이들은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 분들의 육성기록을 통해 본 안산은 아이와 함께 한 흔적들을 안고 살아가며 치유를 하는 일상의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아이들이 집 이외에 가장 많은 생활을 했던 단원고는 416가족들에게 위로의 공간이자 추모의 공간이고, 동거차도는 정부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세월호 인양 작업을 감시해야만 했던 의심의 공간이자 어디서도 마음 속 울분과 응어리를 표출하지 못했던 조금이나만 발산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공감의 공간이었다. 또한 정권이 바뀌고 거저말처럼 바다위로 올라온 세월호를 다시 마주하며 아이들의 영혼이 멈춘 마지막 장소로서 아이들의 마지막을 떠올리고 아이들의 물품을 마주하며 오염할 수 밖에 없었던 목포. 노숙, 농성, 단식, 삭발 등 아이들을 위해 전에 없던 경험을 하고 투쟁을 하면서도 한편 촛불집회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광화문과 청운동. 각각의 공간에 담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3장 ‘416가족의 탄생’은 416가족들이 투쟁의 공동체로서 지난 6년을 함께 하며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자면 투쟁을 이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접했던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농성을 하는 강한 투사의 모습이 아니라 참사를 겪은 유가족, 미수습자 가족, 생존자 가족들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기대고 힘이 되어주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416가족들은 공방 활동, 연극 활동, 합창단 활동 등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진상규명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다. 물론 서로 다른 의견, 다른 모습으로 싸우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일어나지만 결국은 다시 서로를 찾게 된다. 그들에게는 같은 날 같은 이유로 사랑하는 가족들

을 잃었다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마음 아프게 다가온다.

4장은 '가족의 재구성'으로 가족의 일상을 뒤흔든 참사를 겪고 난 후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참사 이후, 아이를 잃은 유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당신들의 부모들조차 만나지 않게 된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죄책감 속에 416가족들은 참사 이전과 다른 어떠한 변화를 겪는다. 늘 함께할 것이라 생각했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을 잃게 되면서, 잊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가족 내 관계의 변화를 맞는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오는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보다 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아빠들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낸 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뒤늦게 깨닫는다. 대한민국에서 중년 남성으로, 가장으로 살아야 했던 아빠들이 내 뱀는, 길으로 드러내기 힘든 내면의 슬픔과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한 마디 한 마디에 결국 몇 번이고 책장을 덮을 수밖에 없었다. 마음껏 사랑해 주지 못하고 마음껏 표현하지 못했던 아빠들은 남아 있는 아이들을 위해 힘을 내고 변하기 시작한다. 살아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곁에 없는 또 다른 아이를 생각하며 느낄 아픔을 조금이나마 헤아려본다.

5장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와 만나게 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다. 416가족들을 향해 생각없이 툭 던지는 한마디에 상처받는 부모들. 세상이 만든 유가족이라는 프레임 속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했던 시간들. 마음껏 울지도 마음껏 웃지도 못하는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함께 해 주며 마치 내 일처럼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 받고 힘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 과정에서 세상을 향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위로와 힘을 받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받은 것을 돌려주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아직 본인들의 상처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음에도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내적 성장을 이루신 416가족들이 존경스러워지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장인 ‘시간의 숨결’은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416가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분들은 6년 전 그날에 머무르며 진상규명을 위해 여전히 투쟁하고 있지만 과거에만 얽매어 살고 있지는 않다.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의 곁에서 아이들을 기억하며 안전사회를 건설하여 다시는 자신들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래를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유가족들에게 2014년 4월 16일 이후의 삶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몇 년 전 인터뷰를 위해 한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때의 기억이 난다. 그 분을 만나면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를 보면서 딸 아이가 떠올라 마음이 아프진 않을지, 인터뷰 도중에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더 힘들어 하시진 않을지 수많은 생각과 걱정이 앞섰다. 막상 인터뷰를 시작하고 머뭇거리는 나에게 아이의 아버지는 먼저 ○○아빠로 불러달라고 하시며 언제까지나 그렇게 불리기를 원한다고 하셨다. 아이가 오랫동안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핸드폰에 담긴 아이의 예쁜 모습과 편지 글을 보여주셨다.

416가족들의 육성기록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이며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던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록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구술 기록으로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 그러나 기록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책을 평하는 것은 잠시 접어두고 싶다.

6번 째 봄, 나에게 다가온 책.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도 필요하지 않다. 단지 사랑하는 가족,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를 잃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마음만 있다면 충분하다. 그리고 공감한다면 남미 키쉴아 부족에 전해 내려오는 크리킨디라는 별새 이야기²⁾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마지막으로 왜 아직도 세월호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꼭 한 번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
- 2) 쓰지 신이치, 『별새의 물 한 방울』 중 황금새 크리킨디 이야기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숲이 타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동물들은 앞다투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크리킨디라는 이름의 별새는 왔다 갔다 작은 부리에 물 한 방울씩 담아 와서는 산불 위에 떨어뜨리고 갑니다. 동물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런 일을 해서 도대체 뭐가 된다는 거야?” 하며 비웃었습니다. 별새 크리킨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야.”